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4년도 표어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사51:10)

행동지침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주 발행인 : 이 중 윤 주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영혼의 양식 - 소년지서 강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야박국 3장 3 - 19절)



이중운 목사(서울교회 담임)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원동력은 구원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직면하면 포기하거나 무관심한 자리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때에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단순한 용기만으로는 닦쳐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능력으로 역사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야박국서는 간결한 내용 속에 심오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 책입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악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야 하는냐는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은 믿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잘 익은 곡식 단은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진실로 성숙한 선지는 잠잠합니다.

3장에서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16절).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알고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가치로 인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육신의 가치를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후 12:9)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그것이 때로는 축한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터득한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1. 하나님께 대한 지식

바벨론에 의해 침략을 당하는 이스라엘에게는 놀라움과 고통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라고 하십니다. 다 시 말해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저급한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나오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떡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17-18절).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원동력은 구원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직면하면 포기하거나 무관심한 자리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때에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단순한 용기만으로는 닦쳐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만일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을 이겼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의지한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능력으로 역사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는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는 일에도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 때 감정으로 혹은 이성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감성이나 이성만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마 5:10). 천국이 자기 것임을 아는 사람은 고난과 박해를 즐겁게 받습니다. 하늘 상급을 받을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의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지식은 우

리를 기쁘게 하며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2. 권능의 하나님

야박국 선지자가 기뻐하고 즐거워 한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데란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3절). 데란과 바란은 이스라엘 남쪽 시내산에 접해 있는 곳으로 선지자가 데란과 바란을 언급한 것은 모세의 하나님을 말하려 함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권능, 출애굽을 시키며 광야길을 인도하신 권능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4절).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능의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사상을 바로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5절). 온역과 열병도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때로 질병을 주면서 우리를 고치기도 하시고 새롭게도 하십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이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11절).

해와 달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멈추게 됩니다. 자연도, 우주도 인간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권능의 하나님을 믿으므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3. 신실하신 하나님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쁨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락까지 드러내셨나이다”(13절).

기쁨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 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왕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악인을 뿌리째 뽑아버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회오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홀로려 하며 가만히 가만할 자 삼켜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14절).

바벨론은 민첩하여 이스라엘을 홀로려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며 바벨론 전사의 머리를 창으로 찌르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야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0-33).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를 의존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야박국 선지자는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선지자의 고백처럼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4년 전반기 장학금 수여

15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우리교회는 교회설립이래 장학위원회를 결성 놓어준 목회자 자녀 및 해외 유학생을 포함하여 본 교회에 등록된 교회학교 학생 중 신앙과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정 년 2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더욱 열심히 학업을 쌓고 신앙을 돈독히 하도록 격려하여 왔다.

올해도 교회 일정에 따라 2004년 전반기 장학생을 선정하여 다음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시상을 하게 된다.

2004년도 전반기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중학생) - 이민음 이종원 임동연 차용환 홍누리 (5명)
- (고등학생) - 권기범 유현주 정희운 최선에 최화미 (5명)
- (대학생) - 김성국 김수정 김승민 박현주 유동훈 이수진 이승준 이정휘 이조은 한정신 홍유미 (11명)
- (김복녀 원사 장학생) - 박광일 손재영 (2명)

교육1국 겨울성경학교 중등부 겨울수련회

교육1국: 14일(월) ~ 17일(목) 교회
중등부: 16일(월) ~ 18일(수) 중등교회 수련원

교육1국(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와 중등부 겨울수련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교육1국 겨울성경학교 주제는 '우리는 이렇게 거듭났다.'로 중등부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주제로 정해 학생들에게 생명의 체험을 가르치게 된다.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여 은혜 받고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 거듭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한다.

농어촌 100교회운동 145개 교회 결연 확정

우리교회는 고령화와 이농현상으로 낙후된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는 농어촌100교회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올해에도 많은 성도들의 후원으로 145개 교회가 자매교회로 결연이 확정되었다. 전도위원회에서는 자매교회에서 보내온 기도제목과 교회의 현황을 후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발송한다. 따라서 후원자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가능한 연 1회 이상 자매교회 방문전도와 봉사의 기회를 갖기를 당부하고 있다. 올해 결연이 확정된 145개 교회 명단은 본지 4면에 게재되어 있다.

2004 봄 학기 열린 프로그램 개강 일정 확정

-한 성도 한 과목이상 수강토록-

우리 교회는 2004학년 봄 학기 열린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을 확정하고 시행토록 당회가 결정 발표하였다.

제25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는 3월29일부터 5월31일까지 매주 월요일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이라는 주제 하에 10주간 강의가 계속된다. 대상은 전국 교회 목회자가 된다.

제15학기 서울 성경대학 역시 3월29일부터 6월6일까지 루기, 갈라디야, 전도서, 예레미야 반이 열린다.

제8학기 샬롬경로대학은 4월1일부터 6월3일까지 매주 목요일 노인들의 건강과 영적생활에 활기를 불어넣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제7학기 주부대학은 3월30일부터 매주 화요일 10주간 프로그램으로 가정과 여가선용에 필요한 강의가 준비되고 있다.

교구일꾼양성반, 교사양성반, 요리문답반, 세례·학습 준비반, 전도학교, 결혼예비학교, 찬양대양성반, 신앙강좌 분과 주일마다 각각 정한 시간에 열린다. 무엇보다도 **교회학교 프로그램**이 주일에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있다.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서울교회답게 다양하게 준비된 강좌에 성도들은 적어도 한 과목 이상 수강 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겨울 성경학교 · 수련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명철 목사(대학부 지도)

2004년도 대학부(지도: 서명철 목사, 부장: 이완형 장로) 겨울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월 12일(목) 오전 10시에 본 교회를 출발하여 14일(토) 오후 2시까지 경기도 용인시 고기동에 있는 갈보리금식기도원에서 성령충만한 가운데 열리게 될 것입니다. 벌써 지난 주 월요일부터 대학부 지체들은 하루 한 끼 릴레이 금식기도를 선포하고 은혜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토요일에는 모든 지체들이 종일 금식기도하고 토요일집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다 함께 만찬을 나누는 즐거움을 미리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대학부는 금년도 교회 표어인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 51:10)를 따라서 금년 한 해 동안 대학부 모든 지체들의 몸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기에 조금도 부끄럼이 없게 되기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이번 겨울수련회의 주제도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제 성구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

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로 택하였습니다.

아직 대학부에 참석하고 있지 않지만 겨울수련회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 3부 예배 후 3시 20분까지 701호에서 모이는 조별성경공부 모임에 오시기 바랍니다.



하이영수 장로(교육 1국장)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는 세상에는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명철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시대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세상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증거를 듣게 하고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토록 치열한 경쟁의 와중에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었고 지켰노라고...

임시준비라고, 또는 무슨 일이 있다고 자녀들을 세상으로 내 돌리고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량을 할 수 있었습니까? 너무도 간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세상이 떠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서울교회의 사랑하는 학부모님들도 이번 겨울 성경학교 기간동안에는 세상을 등지고 자녀들과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함께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는 세상보다 훨씬 깊고 높고 넓고 큰 지혜와 지식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오늘의 이 결단을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후대들이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7절

민민에게 전도 - 에바다부 개교 3주년 행사 탐방

내 이웃 이 누구 니이까



에바다부는 3주년 창립기념의 한 행사로 1월 31일 오후 5시에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농아우들의 초청 잔치를 열었다. 에바다부가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전도를 위한 잔치였다.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뜻

깊은 행사에서 임규현 지도 목사님은 '천국 잔치의 비유로 말씀을 주셨다.

에바다부는 현재 약50여 명의 농아우 성도와 30여 명의 교사를 중심으로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라는 표어 아래 새해부터 전도에 힘을 싣고 있다. '100명의 학생을 주소서'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번 3주년 농아우 초청 잔치를 위하여 지도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장, 부장 각 선생님 과 성도들이 교회 근처를 중심으로 150여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여 초청장을 나누어 주고 전도를 했다고 한다. 초청 잔치의 취지도 이들에게 전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하여 물질적으로 독립해서 이 땅에서 비장애우와 동등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한다. 수고로 뿌린 씨앗은 때가 되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본다.

예배는 주일 9시 가족예배의 시간에 수화 통역이 있고, 농아우 성도들의 참여가 높다. 이외에도 11:20분 과 오후 2:00에 603호실에서 차례로 예배를 드린다. 깊은 침묵 속

에 드러지는 예배는 단순한 수화라는 통역을 거쳐 이들 마음에 하늘나라 소망으로 간결함을 더해 드러지고 있다.

농아우들은 단지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할 뿐 건강한 사람들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일자라가 거의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형편을 아는 임규현 목사님과 에바다부 선생님들은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거의 날마다 200여 명의 서울 시내 농아우들의 명단을 가지고 전도와 더불어 밥을 굶고 있는 가정엔 쌀과 이런저런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몇 분이 이일에 동참하고 있으나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 덧붙여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기를 기도하며, 남다른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물질적 봉사나 나눔의 교제를 특별히 당부한다.

유명희(편집부)



위로의 하나님

인생의 실패는 작전타임과 같은 것이다

이용식 특사(9, 10교구)



우리의 인생에 한 여정 가운데 대학 입시낙방, 취업실패, 사업실패, 승진탈락 등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

런 사회 속에서는 성공자가 있으면 실패자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들은 경쟁에서 항상 이겨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면 비판하여 자신의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절망한다. 이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는가 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성공하고 모든 일이 잘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패 속에도 깊은 인생의 참맛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다. 실패는 우리의 삶을 더욱 진지하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더 깊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하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실패는 작전타임과 같은 것이다. 작전타임을 통해 휴식을 취하게 되고 후반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전술을 세우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는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하고 좀더 진지하게 인생을 바라보게 하고 후반전을 힘 있게 달려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므로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는데까지 147번의 실패를, 라이트 형제가 비행에 성공하기까지 무려 805번의 실패를 했다. 농구 천재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때 후보 선수로 전전하다 퇴출 당했다. 흥련왕 베이브 루스는 714개의 홈런을 치기 위해 1,330번의 삼진아웃을 당해야 했다. 이들은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공을 향한 한 과정으로 보았다.

실패는 우리의 삶의 한과정이다. 실패의 때도 내가 살아야 할 소중한 나의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 실패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한다. 성공한 것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패 때도 감사하라고 말씀한다. 실패할 때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실패라는 것은 없다. 실패는 도전하고자하는 정신을 포기한 자가 실패한 자이다. 예수 안에서 감사함으로 일어설 수 있다면 이미 성공한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이다.

천국일꾼양성-고등부 겨울수련회를 다녀와서

거듭난 삶

김지연 (고등부 2학년)

나는 난생 처음으로 수련회를 갔다. 방학 내내 시달린 학원생활에 대한 휴식을 위해, 그리고 친구들과 좀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수련회를 가기로 했다. 하지만 수련회에 간후에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끌어 주신 진짜 목적을 깨달을 수 있었다. 바로 나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수련회의 주제는 "거듭남"이었다. 내가 거듭나기 전의 예배와 기도는 형식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 때 처음으로 형식적이지 않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찬송가를 부를 때에 실수를 할까봐 입만 벅긋거리던 내가 찬송을 소리높여서 불렀고, 무겁기만



하고 이해는 안되던 성경책을 쟁겨서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옆에있는 친구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것을 들었을때, 평소 소에 불평으로만 가득차있던 내 기도가 생각나서 부끄럽기도 했다. 내가 이렇게 변하기까지 6개월 동안 힘들게 전도해주신 집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수련회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잘 짜여 있었다. 해병대에 가서 많은 경험을 했고, 조원들끼리 재미있게 성경퀴즈도 풀었다. 머리를 짜내면서 만든 대본으로 성극도 해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것은 마지막 밤에 선생님들과 반친구들과 함께 잠도 안 자고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다.

이날 밤에는 오랜만에 솔직한 대화들을 나눌 수 있었고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더욱더 가까워 질 수 있었다.

2박 3일간의 수련회에서, 난 학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정말 좋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다.

마음이 넓으신 목사님과, 멋진 선생님들, 그리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제 예전보다 교회에 나가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너무 기분좋아서 날아갈 것 같기만 하다. 내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것을 느끼면서, 이번 수련회는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